

원희룡 장관, LH 혁신 관련 청년 직원들과 소통

- 8월 8일 진주 본사에서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 개최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8일(월) 진주 LH 본사를 방문, LH 혁신과 관련하여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 -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LH 투기사태는 기성세대들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며, 사기가 저하된 청년 직원들에게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사과하고,
 - LH 청년 직원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,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.
- 청년 직원들은 LH 투기사태 이후 가족들이 본인이 LH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며,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의 쇄신을 건의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LH 혁신은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과제”라며
 - “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고, 불투명한 계약, 전관예우, 갑질문제 등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하며,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인 부당 이득 취득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”고 밝혔다.
 -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부당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“부당 이득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거법 사례도 있다”며,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.
- 회의 종료 후 원 장관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청년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추가적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SNS 등을 통해 소통하자며 직접 소통을 제안하며 청년들의 주도적 동참을 요청했다.

2022. 8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